

## 고려 김수(金須)의 생애와 제주도

홍 기 표\*

### 국문요약

본고는 고려시대 김수(金須)의 생애와 역임관직 및 그와 인연을 맺은 제주도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김수와 관련된 인물의 묘지명 및 그의 과거급제 사실이 담긴 방목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그의 생애를 조명하는 연구기반이 넓혀지게 되었고, 다음의 몇 가지 새로운 논지를 펼칠 수 있었다.

첫째, 김수는 여러 사료를 통해 영암군이 아닌 영광군의 수령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당시 고려의 지방통치 체제상 영광군수 또는 영광부사로 불러야 옳다. 둘째, 김수는 1255년(고종 42) 문과에 급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마치 무인 출신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장군’ 등의 호칭은 향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김수의 성품은 청렴 강직하였으며, 학문탐구에 매진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며 고려의 명문이 되었다. 이리하여 그의 관직생활은 청렴하였으며, 국가를 위한 충의정신으로 일관되었다. 넷째, 제주의 환해장성 축조 주체에 대해 보다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최초의 축조는 1270년 9월 이후 김수와 고여림(高汝霖)을 비롯한 고려 관군이었다가, 그 해 11월 관군이 삼별초에 패한 뒤부터는 오히려 삼별초가 여원연합군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하였다. 또한 환해장성의 축조 주체를 지역별로 구획을 나누어 고려관군, 삼별초 및 조선시대 등 달리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주제어 :** 고려, 김수, 제주도, 삼별초, 환해장성

---

\* 전 성균관대 사학과 겸임교수

## I. 머리말

고려시대 김수는 본관이 광산(光山)으로 김경량(金鏡亮)의 아들이며, 김태현(金台鉉)의 부친이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감찰어사를 거쳐 영광군수에 보임되었다. 때마침 1270년(원종 11) 삼별초의 저항에 대비 200명의 관군을 지휘하여 제주로 파견되었다가, 삼별초와의 전투로 제주에서 전사한 인물이다. 학계에서는 그간 그를 두고 영광군수, 영광부사, 영암군수, 영암부사 등 다양하게 불러왔다. 엄밀한 사료고증이 뒷받침되지 않아 혼용했던 것이다. 또한 삼별초 저항에 대비 제주로 파견될 때 관군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를 ‘장군’이라 일반적으로 호칭되어 왔다.

본고는 『고려사』 및 『고려사절요』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기존 사료 외에 김수 주변 인물들의 묘지명(墓誌銘)을 엄선하여 이와 관련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잘못된 관직 및 호칭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더 이상 논란의 소지를 없앤다면 본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현재 김수와 관련된 연구 논문이 학계에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다. 이에 본고는 김수 연구에 깊이를 더하고자 작성되었다. 더 나아가 묘지명 및 방목류 등을 통해 고려시대 인물 연구가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고가 일조를 기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의 환해장성에 대해 그 축조 주체를 동일 세력에 의해 완성 되었다기 보다는 고려 관군, 삼별초, 조선시대 등 시기별로 달리 인식하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I. 김수의 가계와 가풍

### 1. 김수의 가계

김수의 아들 김태현(金台鉉)은 『고려사』(권110, 열전23)에 입전된 인물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김수의 가계와 관련해 간략한 언급이 나온다. 김태현의 본관은 광주(光州)이고, 먼 조상은 김길(金吉)이며, 부친은 김수(金須), 숙부는 김주정(金周鼎)이라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김수의 본관은 광주인 광산 김씨이며, 그 시조는 김길이다. 동생으로 김주정이 있으며, 아들은 김태현이다. 정사에서 확인되는 김수의 선대 가계는 이처럼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고려시대 과거 급제자의 명단과 가계 등을 기록한 『등과록전편(登科

錄前編』<sup>1)</sup>(서울대 규장각)에 의하면 김수의 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수는 1255년(고종 42) 을묘년 과거에 급제했는데, 그 방목에 의하면 본관은 광산(光山), 초명은 김지용(金之用)이라 되어 있다. 선대로는 증조부 김주영(金朱永), 조부 김광서(金光瑞), 부친 김경량(金鏡亮)이 소개되어 있다. 김수의 동생인 김주정 역시 1264년(원종 5) 갑자년 과거에 급제했는데, 그 방목에 의하면 본관은 광산(光山), 초명은 김지숙(金之淑)이라 되어 있다. 선대로는 증조부 김주영(金朱永), 조부 김광서(金匡瑞), 부친 김경량(金鏡亮)이 소개되어 있다.

위 방목에 의하면 형제인 김수와 김주정의 초명이 각각 김지용과 김지숙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형제인 김수와 김주정의 선대는 모두 동일한데, 조부인 김광서의 한자가 한글자 다르게 되어 있다. ‘광’자가 각각 광(光), 광(匡)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김수의 아들 김태현의 과거 급제시 방목 역시 전하여, 그 가계 기록이 남아 있다. 김태현은 1280년(충렬왕 6) 경진년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그 방목에 선대 가계로 증조부 김광서(金匡瑞), 조부 김경량(金鏡亮), 부친 김수(金須)가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김수, 김주정, 김태현의 방목에 실린 가계만을 놓고 판단해보면 김수의 조부인 ‘김광서’는 김광서(金光瑞)가 아니라 김광서(金匡瑞)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정사와 방목류가 아닌 김수의 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바로 묘지명(墓誌銘)이다. 총 5종의 묘지명이 참고 되는데 다음과 같다.<sup>2)</sup>

- 1) 김수(金須) 처 고씨(高氏) 묘지명(이제현 찬)
- 2) 김수 자 김태현(金台鉉) 묘지명(최해 찬)
- 3) 김수 손 김광재(金光載) 묘지명(이색 찬)
- 4) 김수 제 김주정(金周鼎) 묘지명(미상)
- 5) 김주정 자 김심(金深) 묘지명(윤선좌 찬)

이상의 묘지명에는 사후 추증된 관직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1) 『등과록전편』: 신라와 고려초 중국에서 설행한 과거 시험에 합격한 국내인 명단 및 고려 광종대 이후 국내에서 실시한 과거와 조선시대 1754년(영조 30) 증광문무과 합격자까지 수백 년간의 문무과 합격자 명단을 정리한 책이다. 과거 합격자의 이름과 전력, 본관, 자, 호 및 사조(四祖) 등이 기록되어 있다. 편자와 간행 연대는 미상이다.

2) 김수와 관련된 인물의 묘지명은 총 7종이다. 본문에 소개된 5종 외에 김수의 아들 김태현(金台鉉) 처 왕씨(王氏) 묘지명(이색 찬)과 처조부인 고영중(高瑩中) 묘지명(이원로 찬)이 있다. 하지만 이 두 묘지명은 김태현 아내 쪽 가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 1) 김수 처 고씨 묘지명 : 부군인 김수와 아들인 김태현의 추증 관직이 소개됨.
  - ① 부군 김수(金須) : 금자광록대부 참지정사 집현전태학사 관예부사(金紫光祿大夫 叅知政事 集賢殿太學士 判禮部事).
  - ② 아들 김태현(金台鉉) : 벽상삼한 삼중태광 광정대부 첨의중찬 수문관대제학 감춘추관사 상호군 판전리사사(壁上三韓 三重太匡 匡靖大夫 僉議中贊 修文館大提學 監春秋館事 上護軍 判典理司事).
  
- 2) 김수 자 김태현 묘지명 : 김태현의 3대조 현직과 추증 관직이 소개됨.
  - ① 증조부 김광세(金光世) : 현직은 신호위중랑장(神虎衛中郎將), 추증은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 ② 조부 김경량(金鏡亮) : 현직은 금오위대장군(金吾衛大將軍), 추증은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
  - ③ 부친 김수(金須) : 현직은 감찰어사(監察御史), 추증은 문하시중(門下侍中).
  
- 3) 김수 손 김광재(金光載) 묘지명 : 김광재의 5대조 현직 및 시호가 소개됨.
  - ① 왕고조부 김광서(金匡瑞) : 중랑장(中郎將).
  - ② 고조부 김위(金偉) : 삼사사(三司使).
  - ③ 증조부 김경량(金鏡亮) : 대장군(大將軍).
  - ④ 조부 김수(金須) : 감찰어사(監察御史).
  - ⑤ 부친 김태현(金台鉉) : 문정공(文正公).
  
- 4) 김수 제 김주정(金周鼎) 묘지명 : 김주정의 3대조 추증 관직이 소개됨.
  - ① 증조부 김위(金位) : 상서령(尙書令) 추봉.
  - ② 조부 김광세(金光世) :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 추봉.
  - ③ 부친 김경량(金鏡亮) : 조청대부 금오위대장군(朝請大夫 金吾衛大將軍) 역임.
  
- 5) 김주정 자 김심(金深) 묘지명 : 김심의 3대조 추증 관직이 소개됨.
  - ① 증조부 김광세(金光世) : 조의대부 신호위대장군(朝議大夫 神虎衛大將軍) 추증.
  - ② 조부 김경량(金鏡亮) : 조정대부 흥위위대장군(朝靖大夫 興威衛大將軍).
  - ③ 부친 김주정(金周鼎) : 선수 소용대장군 관군만호 광정대부 지도첨의부사 보문각태학사 동수국사 판삼사사 상장군(宣授 昭勇大將軍 管軍萬戶

匡靖大夫 知都僉議府事 寶門閣太學士 同修國史 判三司事 上將軍), 시호 문숙공(文肅公).

위 묘지명의 가계와 『고려사』 및 ‘방목류’에 기록된 가계와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대부분 묘지명(김태현, 김주정, 김심 묘지명)에서는 김수의 조부가 김광세(金光世)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색의 김광재 묘지명에만 김위(金偉)로 되어 있다. 묘지명에 기록된 김수의 조부 김광세는 『고려사』 및 ‘방목류’의 가계상 김광서(金匡瑞)와 동일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색의 김광재 묘지명 기록이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색의 김광재 묘지명에는 위차가 뒤바뀌어 있다. 김주정의 묘지명에서 조부는 김광세(金光世)이고 증조부가 김위(金位)로 되어 있는데, 이색의 김광재 묘지명에는 조부가 김위(金偉)이고 증조부가 김광서(金匡瑞)로 되어 있다. 이 역시 이색의 김광재 묘지명 위차가 뒤바뀌어 오류가 아닌가 판단된다. 셋째, ‘김위’의 한자 표기가 김주정 묘지명에는 김위(金位)로, 이색의 김광재 묘지명에는 김위(金偉)로 되어 있다. 김주정은 김광재의 숙조부이므로 2대나 앞서고, 김위와 가계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김주정 묘지명의 김위(金位)가 올바른 한자 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증조부인 김위(金位)는 『고려사』 및 ‘방목류’에는 김주영(金朱永)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방목과 묘지명의 시차에 따라 김주영이 김위로 개명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겠다. 이상 5종의 묘지명과 『고려사』 및 ‘방목류’의 가계를 비교하여 김수를 중심으로 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sup>

증조부 : 김주영(金朱永) ≡ 김위(金位)  
조부 : 김광서(金匡瑞) ≡ 김광세(金光世)  
부친 : 김경량(金鏡亮)

본인 : 김수(金須)

아우 : 김주정(金周鼎)  
자 : 김태현(金台鉉)  
손 : 김광재(金光載)  
숙질 : 김심(金深) = 김주정(金周鼎) 자

3) 김수의 가계와 관련한 내용은 객관적 문헌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며, 광산김씨 족보에 수록된 가계와 대비하여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당대 사료인 묘지명과 정사에 수록된 가계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 2. 김수의 가풍

김수의 가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성품을 알아보는 것이 순서이다. 『고려사』 김태현 열전 및 최해(崔灏)가 지은 「김문정공묘지명」에 그와 관련된 간략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 아버지 김수(金須)는 출중한 담력과 지략이 있었다.<sup>4)</sup>
- (아버지 김수는) 성품과 용모가 훌륭하고 아름다웠으며 담력과 지략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중앙과 지방의 관직에 종사하면서 청렴하고 유능하다는 평판이 있었다.<sup>5)</sup>

윗글에 의하면 김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담력과 지략이 남들보다 뛰어났다. 둘째 청렴하고 유능하다. 이 중 청렴하다는 그의 성품은 부인 「고씨묘지명」에서도 확인되며, 특히 강직한 의지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 남편은 의로운 것이 아니면 일찍이 털끝만큼도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일이 없다.<sup>6)</sup>

한편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방목류인 『등과록전편』에 의하면 형제간인 김수와 김주정은 10년 차이로 과거에 급제하였다. 김수는 1255년(고종 42), 김주정은 1264년(원종 5) 각각 과거에 급제했다고 전한다. 이 사실은 『고려사』에도 당시 과거가 시행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확인할 수 있다.<sup>7)</sup> 특히 『등과록전편』에는 김수가 당시 급제자 37명<sup>8)</sup> 중 2위로, 김주정은 당시 급제자 25명 중 장원(1위)<sup>9)</sup>으로 선발되었다고 전한다. 그만큼 형제가 수재인 사실이 확인되는데, 어려서부터 학문 탐구에 매진했던 가풍을 읽을 수 있다. 김수의 동생인 김주정 역시 『고려사』 김주정 열전에 의하면 학문을 좋아하며 진중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확인시켜준다.

4) 『고려사』 권110, 열전23, 김태현(金台鉉). “父須 膽略過人.” 이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5, 전라도 광산현(光山縣). 인물 편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5) 최해(崔灏), 「김문정공묘지명(金文正公墓誌銘)」. “質貌偉麗 膽畧過人 從事中外以廉能稱.”

6) 이제현(李齊賢), 「옥구군대부인고씨묘지명병서(沃溝郡大夫人高氏墓誌銘並序)」. “夫子非其義也 絲毫靡嘗取諸人.”

7) 『고려사』 권73, 선거지1 선장(選場), (고종) 42년(1255) 6월; (원종) 5년(1264) 4월.

8) 서울대 규장각(소장), 『등과록전편』(고종) 42년(1255) 을묘방(乙卯榜) 을과 2위(2/37).

9) 김주정의 과거 장원급제와 관련된 사실은 『고려사』 권73, 선거지1 선장(選場), (원종) 5년(1264) 4월에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지중추원사 최윤개(崔允愷)가 지공거가 되고, 우승 선 박윤(朴倫)이 동지공거가 되어 진사를 뽑았는데, 김주정(金周鼎) 등 25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김주정**의 본관은 광주(光州)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성질이 침착하고 후하여 말이 많지 않았으며 함부로 친구들을 사귀는 일이 없었다.<sup>10)</sup>

이를 통해 어렸을 적 함께 자란 형제로써 김수와 김주정은 학문탐구에 매진하며 강직하고 진중한 성격을 함양하도록 교육받고 성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주정은 삼별초 방어시 제주에서 전사한 형 김수를 떠올리며 조카인 김태현을 가르치고, 가풍에 대해 일깨워 준 적이 있다. 최해의 「김문정공묘지명」에 의하면, 김주정은 김수의 아들인 김태현의 문장을 보고 칭찬하면서 형인 김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했다.

- **(김태현이)** 14세가 되자 숙부이자 작고한 재상인 문숙공(文肅公, 金周鼎)을 따라가 과거 시험 공부를 하였는데, 문숙공이 그가 지은 **사부(詞賦)가 뛰어난** 것을 보고 “우리 가문을 크게 떨칠 사람은 너로구나. 우리 형님은 돌아가시지 않았도다.”라고 하였다.<sup>11)</sup>

김수의 후손들은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며 명문을 이루었다. 아들인 김태현은 과거에 급제하여 고관을 두루 역임하고 지위가 정승에 이르러 치사하였으며, 일찍이 우리나라 명문장을 모아 『해동문감(海東文鑑)』을 간행하기도 하였다.<sup>12)</sup> 김태현의 아들 4명(광식光軾, 광철光轍, 광재光載, 광로光輅)도 모두 과거에 급제했다.<sup>13)</sup> 뿐만 아니라 김태현과 김광재는 모친을 잘 봉양한 효자로도 널리 알려졌다. 김태현의 모친이 곧 김수의 부인이며, 김광재의 모친은 바로 김태현의 처이다. 『고려사』 김태현 열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 **김태현**은 성품이 청렴하고 강직하였으며, 언어와 행동이 예절에 맞았다. <중략> 남과 화목하였고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였다.** 자손을 가르침에 있어서 일정한 규범이 있었다.<sup>14)</sup>
- **김광재**는 밤낮으로 모친 봉양 예절을 다하였고, 어머니가 죽은 후 분묘 곁 여막에서 **삼년 상**을 마쳤다. <중략>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가상히 여겨 <중략> 그가 거주하는 곳을 표창하여 **영창방 효자리(靈昌坊 孝子里)**라 하였다.<sup>15)</sup>

10) 『고려사』 권104, 열전17, 김주정(金周鼎). “金周鼎 光州人 少好學沈厚 寡言不妄交游.”

11) 최해, 「김문정공묘지명」. “甫十四 從叔父故相文肅公學舉業 文肅見其詞賦奇之曰 大吾門者汝乎 吾兄爲不亡矣.” 이 내용은 『고려사』 권110, 열전23, 김태현 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2) 권근(權近), 『양촌선생문집』 권35(동현사략), 「김정승휘태현(金政丞諱台鉉)」. “位至政丞致仕 嘗集國初以來文章 目曰海東文鑑 行于世.” 이 내용은 이색(李穡), 「송당선생김공묘지명병서(松堂先生金公墓誌銘并序)」, 『목은문고』17(1371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광산현(光山縣), 인물, 고려 김태현(金台鉉).

14) 『고려사』 권110, 열전23, 김태현(金台鉉). “性廉直 言動循禮 … 待人以和 事母孝 教子孫有方.”

15) 『고려사』 권110, 열전23, 김태현(金台鉉) 부(附) 김광재(金光載). “奉養其母朝夕盡禮 母歿廬墓終制 … 王聞而嘉之 … 旌表所居曰 靈昌坊孝子里.”

이상을 종합하면 김수의 성품은 청렴 강직하였으며, 학문탐구에 매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들 김태현 및 그 후손들은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며 고려의 명문이 되었다. 더 나아가 김수의 후손은 대대로 부모에 효도하여 국가로부터 정려(旌閭)를 받기도 하였다. 결국 김수의 가계와 가풍은 개개인 청렴 강직한 성품 함양, 학문탐구에 매진하는 학자적 풍모, 부모를 잘 모시는 효성 등 유학적(儒學的) 면모를 지녔다고 이해된다.

### III. 김수의 역임 관직 및 관직 생활

#### 1. 과거 급제

김수의 과거 급제 사실을 전하는 사료는 두 곳이다. 첫째는 『고려사』 김태현 열전이고, 둘째는 최해의 「김문정공묘지명」이다. 두 사료 모두 김수의 아들인 김태현의 전기 및 묘지명인데, 그 속에 아버지인 김수의 과거 급제 사실이 서술되어 있다. 특히 두 번째 사료인 최해의 묘지명에는 김수의 과거급제 연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 『고려사』 권110, 열전23, 김태현(金台鉉).

김태현의 자는 불기(不器)요 광주(光州) 사람이다. 그의 먼 조상 사공(司空) 김길(金吉)은 태조(왕건)를 도와 공로를 세웠으며, 아버지 김수(金須)는 출중한 담력과 지략이 있었으며 과거에 급제한 후 어사(御史)를 거쳐 외직으로 나가 영광군수[知靈光郡]를 지냈다.<sup>16)</sup>

○ 최해(崔瀼), 「김문정공묘지명(金文正公墓誌銘)」.

공의 이름은 태현(台鉉)이고, 자는 불기(不器)이며, 본관은 광산(光山)의 망족(望族) 김씨(金氏)이다. (중략) 아버지 감찰어사(監察御史) 수(須)는 여러 차례 추증되어 문하시중(門下侍中)이 되었다. 시중은 일찍이 충헌왕(忠憲王, 高宗) 을묘년(고종 42, 1255)에 진사제(進士第)에 급제하였다.<sup>17)</sup>

위 두 번째 문헌 최해의 묘지명에는 김수의 과거 급제연도가 1255년(고종 42)이라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이 해의 과거에 대해서는 『고려사』에도 진사시가 실시되어 총 37명

16) 『고려사』 권110, 열전23, 김태현(金台鉉). “金台鉉 字不器 光州人 遠祖司空吉 佐太祖有功 父須 膽略過人 登第由御史 出知靈光郡.”

17) 최해, 「김문정공묘지명」. “公諱台鉉 字不器 金氏本光山望族 … 父監察御史諱須 累贈門下侍中 嘗於乙卯歲登科.”



의 급제자를 배출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고려사』 권73, 선거지1, 선장(選場).

(고종) 42년(1255) 6월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최온(崔溫)이 지공거가 되고 판사재감사(判司宰監事) 김지대(金之岱)가 동지공거가 되어 진사(進士)를 뽑았는데, 을과(乙科)에 곽왕부(郭王府) 등 3명, 병과(丙科) 7명, 동진사(同進士) 23명, 명경(明經) 2명, 은사(恩賜)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sup>18)</sup>

위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급제자 중 갑과는 없고, 곧바로 을과 급제자 이하 인원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을과 장원으로 곽왕부[곽예(郭預)]가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古 4650-10]) 『등과록전편』에 의하면 김수의 과거 급제시 순위까지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고려 고종 42년(1255) 을묘방(乙卯榜)에 장원은 곽예(郭預)인 곽왕부(郭王府)이지만, 바로 그 다음 을과 2위가 김수였음이 확인된다. 당시 갑과 급제자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을과 2위가 곧 전체 37명의 급제자 중 2위였던 셈이다.

○ 김수(金須).

- 고종(高宗) 42년(1255) 을묘(乙卯) 을묘방(乙卯榜) **을과(乙科) 2위**(2/37).

- [초명(初名) 지용(之用)] 밀직(密直) 부(父) 경량(鏡亮) 조(祖) 광서(光瑞) 증(曾) 주영(朱永) 처부(妻父) 고몽경(高夢卿)

## 2. 역임 관직

1255년 과거 급제 이후 문헌에서 확인되는 김수의 역임관직은 서해도(西海道) 금미장(今彌莊)감(監), 감찰어사(監察御史), 영광군수(靈光郡守) 등이다. 1270년 사망한 사실로 보면 그의 관직 생활은 대략 15년간이었다. 다양한 관직을 역임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날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역임 관직은 2개에 불과하다. 감찰어사와 영광군수가 그것이다.

서해도 금미장(감)은 왕명으로 장원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파견되었기 때문에 공식 관직의 임명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과거 급제 후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김수의 직

18) 『고려사』 권73, 선거지1, 선장(選場). “(高宗) 四十二年六月 樞密院副使崔溫 知貢舉 判司宰監事金之岱 同知貢舉 取進士 賜乙科郭王府等三人 丙科七人 同進士二十三人 明經二人 恩賜二人 及第.”

책인데, 급제 후 최초 관직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서해도 금미장(감)은 그의 처 「고씨 묘지명」에서 확인된다. 다만 권신 김인준(金仁俊)과 그의 자제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최씨무신집권기(1196~1258)가 종료된 이후 대략 1260년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sup>19)</sup>

- 참정 부군(叅政 府君)이 일찍이 왕명을 받들고 서해도 금미장(西海道 今彌莊)을 감독하였는데, (중략) 당시의 권신 김인준(金仁俊)의 자제가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부군을 중상하고자 하였다.<sup>20)</sup>

두 번째로 확인되는 김수의 관직은 감찰어사이다. 감찰어사는 고려시대 어사대 소속의 종6품의 관직이다. 어사대는 고려시대 시정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문헌에 따라 어사로도 소개되어 있는데, 이를 조선시대 임금의 명으로 지방에 파견되었던 순무어사, 암행어사 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고려시대의 (감찰)어사는 엄연히 독립된 관청의 특정 임무를 수행하던 고유 관직이기 때문이다.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사료에는 ‘어사’로만 되어 있고, 최해(崔澐)와 이색(李穡) 및 권근(權近)의 기록에는 명확히 감찰어사로 되어 있다.

- 『고려사』 권110, 열전23, 김태현(金台鉉);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광산현(光山縣) 인물, 김수(金須).  
(김태현의) 아버지 김수(金須)는 출중한 담력과 지략이 있었으며 과거에 급제한 후 어사(御史)를 거쳐 외직으로 나가 영광군수[知靈光郡]를 지냈다.<sup>21)</sup>
- 최해, 「문정공김태현묘지명(文正公金台鉉墓誌銘)」(1327년); 이색, 「송당선생김공묘지명병서(松堂先生金公墓誌銘并序)」, 『목은문고』17(1371년); 권근, 『양촌선생문집』 제35권(동헌사략(東賢事略)), 「김정승휘태현(金政丞諱台鉉)」(1420년대 전반).  
(김태현의) 아버지 수(須)는 감찰어사(監察御史)를 지냈다.

김수 사후 1년 전인 1269년(원종 10)에는 영광군수 부임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최해의 「김문정공묘지명」에 의하면 감찰어사를 지내다 곧바로 영광군수로 부임한 사실도 알 수 있다. 원문에는 ‘지영광군(知靈光郡)’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지영광군사(知靈光郡事)’

19) 최씨무신집권시대를 종식시킨 김준(김인준)의 집권기는 통상 1258년(고종 45)부터 1268년(원종 9)까지로 인식된다.  
20) 李齊賢, 「沃溝郡大夫人高氏墓誌銘並序」. “叅政府君 嘗奉內勅 監西海道今彌莊 … 時權臣金仁俊子弟 挾憾欲中傷府君.”  
21) 『고려사』 권110, 열전23, 김태현(金台鉉);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광산현(光山縣), 인물 김수(金須). “(金台鉉) 父須膽略過人 登第由御史 出知靈光郡.”

로 영광군의 지군사(知郡事)를 뜻한다. 고려시대 외직으로 지주사(知州事) 및 지군사는 주군(州郡)에 파견된 수령으로 5품 이상으로 보임했다. 따라서 지영광군의 의미는 영광군의 수령이란 뜻으로 영광군수의 의미로 이해된다.

- (김수가) 지원(至元; 원 세조 연호) 기사년(1269, 원종 10) 어사에서 영광군수(靈光郡守)로 나갔는데, 이듬해(1270) 삼별초가 난을 일으켰다.<sup>22)</sup>

김수의 마지막 관직을 참고할 수 있는 문헌으로는 10여 종이 있다. 정사로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역사지리지서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려묘지명으로는 아내 「고씨묘지명」(이제현)과 아들 「김태현묘지명」(최해)이 있다. 개인 편찬 사서로는 『동사강목』(안정복)과 『탐라지초본』(이원조) 및 『탐라기년』(김석익)이 있으며, 개인 문집으로는 『목은문고』(이색)와 『양촌선생문집』(권근)이 있다. 위의 사서들에 의하면 김수의 최후 관직인 ‘영광군수’가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영광군수[지영광군], 영광부사, 영암부사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사서마다 기록된 명칭을 정확히 제시한 후 이를 점검해본다.

### 1) 영광군수[지영광군]

- ① 이제현, 「옥구군대부인고씨묘지명(沃溝郡大夫人高氏墓誌銘)」: 영광군수(靈光郡守).
- ② 최해, 「김문정공묘지명(金文正公墓誌銘)」: 지영광군(知靈光郡).
- ③ 이색, 『목은문고』 권17, 「송당선생김공묘지명병서(松堂先生金公墓誌銘并序)」: 수영광(守靈光).
- ④ 권근, 『양촌선생문집』 권35(동현사략), 「김정승휘태현(金政丞諱台鉉)」: 수영광(守靈光).
- ⑤ 『고려사』 권110, 열전23, 김태현(金台鉉): 지영광군(知靈光郡).
- ⑥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광산현(光山縣), 인물: 지영광군(知靈光郡).
- ⑦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6, 전라도 영광군(靈光郡), 명환: 지군(知郡).

### 2) 영광부사(靈光副使)

- ① 『고려사』 권27, 원종12년(1271) 4월 9일(임인).
- ② 『고려사』 권27, 원종12년(1271) 10월 7일(정유).

22) 최해, 「김문정공묘지명」. “至元己巳 自御史出知靈光郡 明年三別抄叛…”

③ 김석익, 『탐라기년』 권1, 고려 원종 11년(1270) 11월.

### 3) 영암부사(靈巖副使)

① 『고려사』 권103, 열전16, 김응덕(金應德).

② 『고려사절요』 권18, 원종 11년 11월.

③ 안정복, 『동사강목』 권11(하), 경오년(원종 11) 11월.

### 4) 부사(副使)

① 이원조, 『탐라지초본』 제주목, 변정(邊情), 전수(戰守).

이상의 문헌에서 김수의 마지막 관직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로 한다. 먼저 지명으로 ‘영광군’과 ‘영암군’의 차이이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두 지역은 엄연히 다른 지역을 말한다. 영광군은 서해상 전라남도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암군은 전라남도 서남해안 월출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고려 때에도 역시 두 지역은 다른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고려사』(권57, 지리지2)에 따르면 영광군과 영암군은 각각 별개의 지역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관내 하부 군현이 각각 다른 10개와 5개가 소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김수의 마지막 임지로 두 지역 중 하나는 오류, 오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광군수 또는 영광부사의 용례가 10건으로 다수이고, 영암부사의 용례는 3건으로 소수이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료인 묘지명에서는 모두 ‘영광군’으로 기록되어 있다. 더 나아가 조선전기 역사지 지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전라도 편에 영암군(권35)과 영광군(권36)이 모두 소개되고 있는데, 이 중 김수와 관련된 사실은 영광군과 본관인 광산현(권35)에 소개되고 있다. 결국 영암부사는 오류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김수의 마지막 관직은 ‘영광’의 수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sup>23)</sup>

다음으로 ‘군수’와 ‘부사’의 차이이다. 김수 처 「고씨묘지명」(이제현 찬)에 의하면 ‘영광군수’라고 되어 있다. 또한 이색과 권근의 문집에서도 영광 ‘수령’[守靈光]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사』 열전, 최해의 「김태현묘지명」 및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영광군의 ‘지군사(知郡事)’라 하여 영광 지역을 관할하는 책임자 곧 영광군수임을 밝히고 있다. 『고려사』세가 편 두 곳에서만 ‘영광부사’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행정체계상 불가피한 서술로 보인다. 즉 전라도 전 지역을 관할하는 책임자로 안찰사(按察使)가 있었다. 이를 총

23) 현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또는 『두산백과』 등 공신력 있는 백과사전에서도 김수의 관직을 영암부사(靈巖副使)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김수를 영광군수(靈光郡守) 또는 영광부사(靈光副使)로 소개하는 것이 옳다.

책임자인 정사(正使)로 보면, 관내의 특정 개별 지역들을 관할하는 책임자는 ‘부사(副使)’라고 호칭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70년(원종 11) 김수가 삼별초 방어를 위해 제주로 파견될 때, 전라도 안찰사 권단(權坦)의 명을 받고 영광 지역을 관할하는 책임자(부사)로 내려가고 있다. 고려시대 부사(副使)는 사(使)의 부직(副職)으로 여러 관서에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라도 안찰사의 부직으로 영광 지역을 관할하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영광 부사라 호칭하게 된 것이다. 결국 영광부사는 고려시대 때 영광군수를 뜻하는 또 다른 호칭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김수의 마지막 관직에 대해 타당한 호칭을 결론 내리면 다음과 같다. 영암부사는 영광부사의 오기 또는 오류이다. 영광부사는 당시 전라도 안찰사 아래에 영광 지역을 관할하는 수령을 호칭한 것이다. 따라서 영광부사 보다는 영광군수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관직생활

이제현(李齊賢)이 김수의 부인인 고씨가 서거한 해인 1327년(충숙왕 14)에 지은 「옥구군대부인고씨묘지명명서(沃溝郡大夫人高氏墓誌銘並序)」에 의하면 김수의 관직 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문구가 등장한다.

- 참정(叅政)<sup>24</sup> 부군(府君)이 일찍이 왕명을 받들고 서海道(西海道)<sup>25</sup> 금미장(今彌莊)<sup>26</sup>을 감독하였는데, 장인(莊人)이 부군에게 잘 보이려고 숲 몇 수레를 가져왔다. 대부인은

24) 참정(參政):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중2품 관직으로 참지정사(參知政事)의 줄임말. 김수 장군이 생전에 참지정사를 역임한 것은 아니고, 사후 추증된 것이다. 이제현이 이 글을 지은 1327년 당시에는 김수의 추증 관직이 참지정사라 되어 있지만, 이 보다 3년 뒤인 1330년 최해가지은 「김문정공묘지(金文正公墓誌)」에 의하면 김수가 여러 차례 추증되어 문하시중이 되었다고 전한다. 문하시중은 중서문하성의 중1품 관직으로 수상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김수의 최종 추증 관직은 문하시중으로 확인된다.

25) 서海道(西海道): 고려시대 지방조직인 5도양계 중 한 곳으로, 조선시대 황해도 지방을 말한다.

26) 금미장(今彌莊): 황해도 지역에 있었던 장원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지역을 알 수 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황해도 편에 의하면 조선 초기까지 남아 있던 장(莊)은 두 곳으로 확인된다. 장련현의 연풍장(連豐莊)과 웅진현의 만진장(萬珍莊)이다. 이와 관련 박종기는 고려시대 부곡제의 분포를 제시하면서 장(莊) 17곳, 처(處) 31곳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참고하였다고 한다(박종기, 2011, 「고려시대 종이 생산과 소 생산체제」, 『한국학논총(35집)』). 고려시대 ‘장처(莊處)’는 왕실, 사원 등 특권기관에게 경제적 재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제정된 행정조직의 하부단위였으며, 그 안의 농경지는 장원을 지급 받은 지배자에게 조세를 바치는 수조지(收租地)의 기능을 하였다. 고려말기 요물고(料物庫)에 속한 장처전이 고려 전역에 360개 정도 있었다고 전한다(『고려사』권 78, 식화지 녹과전, 우왕 14년 6월).

“남편은 의로운 것이 아니면 일찍이 털끝만큼도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일이 없는데, 하물며 감독하는 임무를 띠고 와서 그러하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문을 닫고 받지 않았다. 밤이 되자 장인이 그것을 두고 갔는데, 당시의 권신 김인준(金仁俊)의 자제가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부군을 중상하고자 하여 드디어 인준에게 참소하여 가서 엿보게 하였다. 숲이 밖에 쌓여 있고 거두어가지 않으니, 감시하는 자가 이에 감동하여 묻지 않았다.<sup>27)</sup>

윗글은 김수 부인 고씨의 청렴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서술된 대목이다. 남편에게 아부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부인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는 장인(莊人)에게 단언코 거절하는 일화를 전하고 있다. 부인의 그러한 생활 습속은 남편인 김수의 청렴상에 영향 받은바 크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남편의 성품을 “의로운 것이 아니면 타인에게 털끝만큼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여 본인 역시 남편의 생활철학을 함께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수의 이런 성품은 마치 『논어(論語)』 「계씨(季氏)」 편에 나오는 ‘견득사의(見得思義)’의 정신을 연상케 한다. 견득사의란 ‘눈앞에 이익을 보거든 먼저 그것을 취함이 의리에 합당한 지를 생각하라.’는 말이다. 일체의 부정을 취함이 없이 올곧게 관직 생활을 이어가려는 그의 정신을 알 수 있다. 그의 청렴상은 부인과 자식에게 이어졌음도 확인되며, 따라서 단순히 참다운 관직생활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풍으로 자리 잡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김수의 청렴상은 다른 글에서도 확인된다. 1330년(충숙왕 17) 김수의 아들 김태현(金台鉉)이 서거하자 최해(崔灑)가 지은 「김문정공묘지명(金文正公墓誌銘)」이 바로 그것이다.

- (김수) 성품과 용모가 훌륭하고 아름다웠으며 담력과 지략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중앙과 지방의 관직에 종사하면서 **청렴하고 유능**하다는 평판이 있었다.<sup>28)</sup>

고려 후기 이제현과 최해는 당대의 명문장가들이었다. 이들이 김수의 부인 고씨와 아들 김태현의 묘지명을 쓴 시점은 1330년경이다. 김수가 전사한 1270년부터 불과 60년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무리 가까운 동료의 부탁으로 쓴 글이라 해도 당시 전하는 관직 사회의 일반적 평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김수의 ‘청렴과 유능’은 이미 고려시대

27) 李齊賢, 「沃溝郡大夫人高氏墓誌銘並序」. “叅政府君 嘗奉內勅 監西海道今彌莊 莊人矯府君命致炭數車 大夫人曰 夫子非其義也絲毫靡嘗取諸人 況所監臨者乎 此必妄也 閉門不納 迨夜莊人置之去 時權臣金仁俊子弟 挾憾欲中傷府君 遂以譖仁俊使覘之 炭委積於外無收 視者乃感悟不問.”

28) 본고 주 6) 참조.

당대부터 평가받아온 객관적 정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청렴성 외에도 그의 또 다른 관직 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같은 최해의 글에서 확인된다.

- (고려조정에서) 전라도 선정관(選正官)<sup>29)</sup>에게 문서를 내려 보내 사람들이 평소 믿고 **따를 수 있는 자가** 군사를 이끌고 함께 나가라고 하였다. 시중(김수)이 그 선발에 뽑히자 **집에서 숙식을 하지 않고** 드디어 초군(抄軍)과 함께 급하게 가서 고여림(高汝霖)과 탐라에서 만났다.<sup>30)</sup>

1270년 삼별초의 난 때 고려 조정에서 삼별초가 제주를 점거하기 전에 제주를 확보하기 위해 고여림과 김수를 먼저 제주에 내려 보냈다. 당시 영광부사로 재직하던 김수는 조정의 명이 내려지자, 집에 들러 행장을 꾸리고 가족과 이별하는 감상의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 지체 없이 군사를 이끌고 제주로 내려갔던 것이다. 국가 위란의 시기에 충의(忠義)를 앞세우고 과감한 결단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자세는 귀감이 될 만하다. 이 사실은 다음 같이 이체현의 「고씨묘지명」 마지막 문구 비명(碑銘)에서도 확인된다.

- 장렬하게 부군은 **몸을 바쳐 나라를 구하였고 의가 두터우며 절개가 곧으니** 봉성(崩城)의 죽음<sup>31)</sup>도 범상한 것이 아니었네.<sup>32)</sup>

이처럼 청렴 강직한 생활철학과 국가를 위한 충의정신이 바로 김수의 일관된 관직 생활이었다. 그 때문에 고려 조정에서도 김수를 위해 여러 차례 본인 및 후손에게 보상을 시행하였다. 『고려사』에 의하면 김수가 사망한 이듬해 부인에게 재정 지원을 했으며, 아들에게는 품계를 높여주고 관직을 수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수 본인에게도 사후 추증의 관직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 고려 최고의 관직인 문하시중(수상직)에 이르렀다.

- 영광부사 김수의 아내에게 **쌀 10곡(斛)을 하사**하여 전사한 김수의 충절을 표창하였다.<sup>33)</sup>
- 원종12년(1271) 겨울 10월 정유일에 대사령을 내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중략) 제주

29) 선정관(選正官): 『광산김씨세보』에는 종정관(從征官)이라고 되어 있다.

30) 최해, 「김문정공묘지명」. “牒下全羅道選正官 雅爲人所信服者 領軍偕進 侍中當其選不宿家 遂行抄軍函會汝霖于耽羅.”

31) 봉성(崩城)의 죽음: 중국 제(齊)나라 범기량(范紀梁)의 처 맹강녀(孟姜女)가 진시황(秦始皇) 때 남편이 장성을 쌓기 위해 부역을 나가자 옷을 만들어 남편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하지만 남편이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성(城) 밑에서 곡(哭)을 하니 성이 무너져 남편의 유해가 나타났다 한다.

32) 이체현, 「옥구군대부인고씨묘지명병서」. “銘曰 … 烈烈乃公捐軀殉國 義篤崩城之死靡慝 ….”

33) 『고려사』 권27, 원종12년(1271) 4월 9일(壬寅). “賜靈光副使金須妻, 米十斛, 以表須戰亡之忠.”

에서 수자리하다가 전사한 장군 고여림(高汝霖), 영광부사(靈光副使) 김수(金須) 및 역적 토벌에 중군하였던 서울과 지방의 별초 군사들의 아들에게는 그 품계를 보통보다 한 급 뛰어 올려 관직으로 상줄 것이다. (하략)”라고 하였다.<sup>34)</sup>

- 대부인(大夫人) 고씨(高氏)는 (중략) 금자광록대부 참지정사 집현전태학사 판예부사(金紫光祿大夫 叅知政事 集賢殿太學士 判禮部事) 김수(金須)의 처이다.<sup>35)</sup>
- (김태현의) 아버지 감찰어사(監察御史) 수(須)는 여러 차례 추증되어 문하시중(門下侍中) 이 되었다.<sup>36)</sup>

김수는 1270년 삼별초의 난 발생시 삼별초의 제주 진입을 방어하기 위해 제주에 파견되었다가 전사하였다. 당시 그의 직책은 영광부사였다. 고려시대 외직으로 방어진, 주, 군에 파견된 부사(副使)는 대체로 5~6품직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한 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사후 그에 대한 추증이 이루어진다. 이제현이 1327년(충숙왕 14)에 지은 「옥구군대부인고씨묘지명병서」에 의하면 당시 김수가 수여 받은 추증 품계와 관직은 2품 직까지 올랐음이 확인된다. 즉 품계로는 정2품 상계의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 관직으로는 역시 재상급인 종2품 (중서문하성의)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추증 받았다. 또한 3년 뒤 최해가 1330년(충숙왕 17)에 지은 「김문정공묘지명」에 의하면 김수의 추증 관직은 문하시중(門下侍中)에까지 이른 사실이 확인된다. 문하시중은 명실 공히 고려의 최고관직으로서 수상인 종1품이다. 그의 사후 6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김수는 추증으로 고려의 최고 관직을 수여받았던 것이다.

#### IV. 김수와 제주도

제주도는 1270년(원종 11) 11월~1273년(원종 14) 5월의 2년 반에 걸쳐 여원연합군과 맞서 항몽전을 수행했던 삼별초의 최후 거점이었다. 삼별초는 1270년 6월 강화도에서 봉기를 일으킨 이래 곧바로 진도로 옮겨 1270년 7월~1271년 5월의 약 1년간 항쟁을 전개하였다.<sup>37)</sup> 그런데 삼별초의 진도시대에 이미 제주도의 전략상 이점을 간파하고 고려조

34) 『고려사』 권27, 원종12년(1271) 10월 7일(丁酉). “敕曰 … 戍濟州戰死 將軍高汝霖 靈光副使 金須 及從討逆賊京外別抄之子 超資賞職…”

35) 이제현, 「옥구군대부인고씨묘지명병서」. “大夫人 姓高氏 … 金紫光祿大夫叅知政事集賢殿太學士 判禮部事 金諱須之妻.”

36) 최해, 「김문정공묘지명」. “(公諱台鉉) … 父 監察御史諱須 累贈門下侍中…”

37) 『고려사』에 의하면 배중손이 강화도에서 삼별초 신정부를 수립한 날이 1270년 6월 1일이라



정과 삼별초간의 제주를 선점하기 위한 첫 교전이 있었고, 삼별초가 먼저 승리를 거두면서 1270년 11월부터 제주는 삼별초의 기지가 되었다. 이후 1273년 4~5월 10,000명의 여원연합군이 제주에 상륙하여 삼별초와 최후의 전투를 벌여 삼별초의 항몽전은 그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되었다. 그 후 제주는 원제국의 영향 하에 약 100년간의 세월을 보내며 목마장이 설치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목호들의 침탈에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1270년 9월경 삼별초와 여원연합군은 진도에서 격전을 벌이던 중이었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제주를 선점하여 삼별초의 내습에 대비하였다. 이때 제주에 파견된 관군이 고여림(高汝霖)<sup>38)</sup>과 김수가 이끄는 병력이었다. 최해의 「김문정공묘지명」에 그 사실이 실려 있다.

- (김수가) 지원(원 세조 연호) 기사년(1269)에 어사를 거쳐 영광군 지군사로 나갔다. 이듬해(1270) 삼별초가 난을 일으켜 강화 수도의 사람과 물자를 약탈하고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며 먼저 탐라를 점거하려 하였다. 그 때문에 고려조정은 장군 고여림을 파견하여 쫓아가 토벌하도록 했다. (중략) 시중(김수)이 (중략) 드디어 초군과 함께 급하게 가서 고여림과 탐라에서 만났다. 적(삼별초)들이 아직 진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탐라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밤낮으로 성벽을 쌓고 병기를 수리하며 내습로를 끊어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sup>39)</sup>

제주에 먼저 입도한 김수와 고여림은 향후 삼별초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제주 전역에 걸쳐 환해장성(環海長城)을 쌓기 시작했다. 이 사실은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를 비롯한 역사지서 등에 ‘고장성(古長城)’이라는 항목으로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환해장성’이란 표현은 1918년 김석익의 『탐라기년』에 처음 등장하며, 1953년 담수계의 『증보탐라지』에는 표제어를 환해장성이라 하여 소개하고 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고적, 고장성(古長城).

---

하였고, 이틀 뒤인 6월 3일에는 남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전한다. 이와 관련 삼별초의 진도 입거 시기에 대해 7월 또는 8월 하순 등 여러 주장이 있어왔는데 윤용혁은 6월 하순으로 판단하였고(윤용혁, 2011, 「고려 삼별초의 항전과 진도」, 『도서문화(37집)』, 89쪽), 본고도 그의 입장을 따라 삼별초의 진도 항쟁기를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약 1년간으로 기술하였다.

38) 고여림(高汝霖, ?~1270): 1268년 야별초지유로서 일찍이 김준(金俊)의 휘하에 있었으나, 임연(林衍)이 김준을 죽일 때 김준의 편에서 방어하지는 않았다. 삼별초 난 때 진도, 제주도에 서 그들과 맞서 싸웠으나 제주에서 전사함.

39) 최해, 「김문정공묘지명」. “至元己巳 自御史出知靈光郡 明年三別抄叛 掠江都人物舟而南下 志在先據耽羅 本國遣將軍高汝霖追討 … 侍中遂行抄軍函會汝霖于耽羅 則賊猶保珍島未至 於是晝夜築堡役械 謀斷來道使無得入.”

바닷가에 따라 둘러쌓았는데 둘레가 3백여 리이다. 고려 원종(元宗) 때에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 진도에 웅거하니, 왕이 시랑 고여림(高汝霖)의 무리를 탐라에 보내어 군사 1천을 거느리고 방비하고, 인하여 장성(長城)을 쌓았다.

○ 김석익, 『탐라기년』(원종 11년:1270, 11월).

김수(金須)와 고여림(高汝霖) 등이 환해장성(環海長城)을 축조하여 (삼별초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도모하였다.

○ 담수계(淡水契), 『증보탐라지』, 명소고적, 성곽, 환해장성(環海長城).

1270년(원종 11)에 김수(金須), 고여림(高汝霖) 등이 반적(叛賊)의 내도를 단절하기 위하여 해안가에 600여 리를 환축(環築)하였는데, 세월이 오래되면서 무너져버렸다. 1845년(헌종 11)에 목사 권직(權稷)이 보수하여 쌓았다.

결국 1270년 11월 초에는 진도에서 항전하던 삼별초의 선발대 이문경(李文京) 부대가 명월포로 제주에 입도하였다. 1270년 11월 3일(기해), 관군과 삼별초의 첫 교전이 송담천(松淡川)<sup>40</sup>에서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김수를 비롯한 관군은 전멸하고 제주는 삼별초의 수중에 들어갔다.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기년(耽羅紀年)』에 그 사실이 자세히 실려 있어 아래에 소개한다.

○ 고려 원종 11년(1270) 11월. 삼별초가 탐라를 함락시켰다. 처음에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 강도(江都)의 사람과 물자를 약탈하여 바다로 남하하였다. 전라안찰사(全羅按察使) 권단(權坦)<sup>41</sup>이 영광부사(靈光副使) 김수(金須)를 파견하여 병사 200명으로 탐라를 지키게 하고, 또 장군 고여림(高汝霖)을 파견하여 병사 7천명<sup>42</sup>으로 그 역할을 이어 맡도록 했다. 이때 적들은 아직 진도(珍島)를 지키며 탐라에 들어오지 않아서 김수와 고여림 등이 환해장성(環海長城)을 축조하여 (삼별초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도모하였다. 적이 먼저 위장(僞將) 이문경(李文京)을 보내 명월포(明月浦)<주의 서쪽>를 경유하여 동제원(東濟院)<sup>43</sup><주의 동쪽>에 군대를 모아 진을 치고는 군사를 풀어 약탈하였다. 관군이 역습하

40) 송담천(松淡川): 현재 제주시 화북동과 삼양동을 경계 짓는 내를 말함. 1270년 이문경의 삼별초군이 고려 관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둔 곳.

41) 권단(權坦, 1228~1311): 자 회지(晦之). 스스로 몽암거사(夢巖居士)라 하였다. 시호 문청(文淸). 3도 안찰사를 역임했으며, 성품이 청렴하고 불교를 독신하여 만년에는 선흥사(禪興寺)에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일생을 마침.

42) 이상의 내용은 여러 사료에 보이는데 고여림 장군이 이끄는 병사 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고려사』(권103, 열전16, 진자화(陳子和))와 『고려사절요』(권18, 원종 11년 11월)는 70명,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고적) 및 『탐라지』(이원진)는 1천명, 『탐라지초본』(이원조)은 7천명으로 되어있다. 이 중 『탐라지초본』과 본문 『탐라기년』의 7,000명 기록은 당시 관군의 사정이나 또 이문경이 이끈 삼별초에 전멸 당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설득력을 잃은 숫자라고 하겠다. 아마도 『고려사』 등에서 고여림이 이끌고 온 병사 수 70명을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 송담천(松淡川) <주의 동쪽>에서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김수, 고여림 등은 힘껏 싸우다 죽었다. 이문경이 드디어 관군을 모두 죽이고 조천포(朝天浦) <주의 동쪽>를 점거하였다.<sup>44)</sup>

이상에서 제주 환해장성의 축조 주체와 시기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최초의 축조는 1270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인데, 이때는 고려 관군인 김수와 고여림 등이 삼별초를 방어하기 위해서 축조하였다. 하지만 1270년 11월 송담천 전투에서 고려 관군이 패배하여 삼별초 세력이 제주를 장악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삼별초가 여원연합군의 제주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환해장성 축조를 이어갔다고 생각된다.<sup>45)</sup>

또한 환해장성은 고려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왜구 침입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축조 범위를 넓혀 갔으며,<sup>46)</sup> 조선후기에는 이양선에 대비하기 위해 환해장성 보수가 이루어졌음도 확인된다.<sup>47)</sup> 따라서 제주 전 해안을 통틀어 축조 주체가 동일한 세력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오히려 시기별, 지역별로 구획을 나누어 고려관군, 삼별초 및 조선시대 등 축조 주체가 각각 다르지 않았는가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sup>48)</sup> 이에 대한 정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한편 1601년(선조 34) 제주에 안무어사로 왔던 김상헌은 제주 연해에 둘러쌓은 환해장성을 가리켜 ‘탐라 때 쌓은 만리장성’<sup>49)</sup>이라고 기술하

43) 동계원(東濟院):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고적)에 의하면 “주 동쪽 9리에 있다. 남은 터가 있는데 곧 이문경이 진을 쳤던 곳이다.”라고 되어 있음. 동주원 혹은 동지원이라고도 부르며, 현재 제주시 화북1동 거로 마을 입구로 오현고등학교 앞.

44) 김석익, 『탐라기년』 권1. “高麗 元宗 十一年 十一月. 三別抄陷本國 初三別抄叛 掠江都人物 浮海南下 全羅按察使權坦 遣靈光副使金須 以兵二百來守 又遣將軍高汝霖以兵七千繼之 時賊猶保珍島未至 須汝霖等 因築環海長城 謀斷來道 賊先遣僞將李文京 由明月浦<州西> 至陳兵于東濟院<州東> 縱兵焚掠 官軍逆戰松淡川<州東> 不克 須汝霖皆力戰死之 文京遂盡殺官軍 進據于朝天浦<州東>.”

45) 환해장성과 관련한 최초의 연구로는 김봉옥 및 고창석과 강창언 등이 있다. 이들은 환해장성의 최초 축조는 고려 관군이며, 그 시점은 1270년 9월경부터라고 판단하였다(김봉옥, 1987, 『제주통사』, 제주문화; 고창석/강창언, 1989, 「옛 제주관문인 화북포구 일대 학술조사」, 『탐라문화』 8; 강창언, 1991, 「제주도의 환해장성 연구」, 『탐라문화』 11). 또한 고창석은 2개월 이내에 고려 관군이 해안선 곳곳에 장성 축조를 완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군이 패한 이후 삼별초가 이어서 축조했다고 주장하였다(고창석, 2007, 『탐라국시대사』, 서귀포문화원; 김보한, 2016, 「제주도 환해장성과 규슈 원구방루의 역사적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55).

46) 전영준은 이와 관련 ‘성산이나 온평 등지의 장성은 위치상 왜구의 주요 상륙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왜구 방어를 위해 축조된 환해장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전영준, 2015, 「삼별초의 항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47) 김석익, 『탐라기년』 권4. “朝鮮 憲宗 十一年(1845) 冬 修築環海長城”.

48) 이에 대해서는 필자만의 단독 주장이 아니라, 최근 제주대 전영준 교수와의 구술을 통해 공감을 이룬 바 있다.

49) 김상헌, 『남사록(南槎錄)』 1601년(선조 34) 10월 12일. “바닷가 일대에는 또 석성을 쌓았는데 길게 이어져 끊어지지 않았다. 온 섬을 돌아가며 곳곳이 모두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탐라 때에 쌓은 만리장성이라고 한다(沿海一帶又築石城 連亘不絕 環島處處皆然 乃耽羅時所築萬里長城云).”

고 있어 주목된다.

## V. 맺음말

김수와 관련하여 그간 학계에서는 일체의 논문 한 편 없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문헌사료로는 그의 생애와 역임관직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의 묘지명이 전하고, 그와 관련된 항목이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그의 생애에 대한 궤적을 좀 더 자세히 살필 수 있었다. 본고는 다음의 네 가지 사실을 새로이 규명하여 놓았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첫째, 김수에 대해 그간 영광군수, 영광부사, 영암군수, 영암부사 등 다양하게 불려왔던 호칭은 영광군의 수령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당시 고려의 지방통치 체제상 영광군수 또는 영광부사로 불려야 옳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김수는 1255년(고종 42) 문과에 급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마치 무인 출신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장군’ 등의 호칭은 향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김수의 성품은 청렴 강직하였으며, 학문탐구에 매진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들 김태현 및 그 후손들은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며 고려의 명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부모에 효도하여 국가로부터 정려(旌闈)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그의 관직생활은 청렴 강직하였으며, 국가를 위한 충의정신으로 일관되었다. 그 때문에 고려 조정에서도 김수를 위해 여러 차례 본인 및 후손에게 보상을 시행하였다. 사후 그에게 여러 차례 관직이 추증되어 결국 고려 최고의 관직인 문하시중(수상직)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넷째, 제주의 환해장성 축조 주체에 대해 향후 정밀한 연구 성과가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최초의 축조는 1270년 10월 전후 김수와 고려림을 비롯한 고려 관군이었는데, 그 해 11월 3일 관군이 삼별초에 패한 뒤부터는 오히려 삼별초가 여원연합군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왜구 침입에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그에 대한 보수는 조선후기까지도 이어졌다. 따라서 환해장성의 축조 주체를 시기별, 지역별로 구획을 나누어 고려관군, 삼별초 및 조선시대 등 달리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문헌사료 중심으로 피상적인 단면만 알아왔던 김수에 대해 보다 진

일보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특히 묘지명과 방목류를 통해 그의 생애를 보다 정밀히 살필 수 있었다. 향후 이를 활용한 고려시대 인물 조명이 보다 심도 있게 연구되길 기대한다.

● 부록1. 김수 연표

연 도	주요 사항	참고 사항	출 전
1220년대 (고종) 중반	탄생	제 김주정 탄생 이전	김주정 묘지명
1228년 (고종 15)	제(김주정) 탄생	제 김주정 1290년(충렬왕 16) 사망(향년 63세) 역산	김주정 묘지명
1247년 (고종 34)	부친(김경량) 사망	제 김주정(약관)	김주정 묘지명
1255년 (고종 42)	과거 급제 <급제자 37명 중 2위>	지공거: 추밀원부사 최온(崔溫) 동지공거: 판사재감사 김지대(金之岱)	고려사 선거지 등과록전편 김태현 묘지명
1261년 (원종 2)	자(김태현) 출생		고려사 김태현전 김태현 묘지명
1264년 (원종 5)	제(김주정) 장원급제		고려사 선거지 김주정 묘지명
1260년대 (원종) 중반	서해도 금미장(감)	권신 김인준(金仁俊) 집권기	처 고씨 묘지명
1260년대 (원종) 후반	감찰어사		김태현 묘지명 김광재 묘지명 동현사략(권근)
1269년 (원종 10)	영광군수 (영광부사)		김태현 묘지명
1270년 (원종 11)	사망(영광군수) <자(김태현) 10세>	제주 송담천 전투	고려사 외 다수
1275년 (충렬왕 1)	자(김태현) 진사시 장원급제		고려사 김태현전
1327년 (충숙왕 14)	추증(참지정사) <처(고씨) 사망(102세)>	금자광록대부 참지정사 집현전태학사 판예부사	처 고씨 묘지명
1330년 (충숙왕 17)	추증(문하시중) <자(김태현) 사망>	중서문하성 문하시중	김태현 묘지명

## ● 부록2. 김수 관련 문헌 자료

연번	출 전	내용 요약	출전 분류
1	『고려사』 권27, 원종12년(1271) 4월 9일(임인)	총절 표창	정사 및 역사 지지서
2	『고려사』 권27, 원종12년(1271) 10월 7일(정유)	추증	
3	『고려사』 권103, 열전16, 김응덕	제주입도, 전사	
4	『고려사』 권110, 열전23, 김태현	약력	
5	『고려사절요』 권18, 원종 11년(1270) 11월	제주입도, 전사	
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광산현, 인물(고려)	약력	
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6, 전라도 영광군, 명환(고려)	제주입도, 전사	
8	이원조, 『탐라지초본』, 제주목, 변정, 전수	제주입도, 전사	
9	담수계, 『증보탐라지』, 명소고적, 성곽, 환해장성	환해장성	
10	권근, 『양촌선생문집』 제35권, 「동현사략」, 김정승휘태현	약력	개인 문집 및 사서
11	안정복, 『동사강목』 권11(하), 경오년(원종 11) 11월	제주입도, 전사	
12	김석익, 『탐라기년』 권1, 고려 원종 11년(1270) 11월	제주입도, 환해장성, 전사	
13	이제현, 「옥구군대부인고씨묘지명」	약력	관련 인물 묘지명
14	최해, 「문정공김태현묘지명」	약력	
15	이색, 「송당선생김공묘지명병서」, 『목은문고』(권17)	제주입도, 전사	
16	미상, 「문숙공김주정묘지명」	가계, 가풍	
17	윤선좌, 「충숙공김심묘지명」	가계	
18	『고려사』 권104, 열전17, 김주정	가계, 가풍	관련 사건 및 인물 간접 자료
1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고적, 고장성/ 송담천	환해장성, 전사	
20	이원진, 『탐라지』 제주목, 고적, 고장성/ 송담천	환해장성, 전사	
21	이형상, 『남환박물』, 지고, 고장성/ 송담천	환해장성, 전사	
22	윤시동, 『증보탐라지』 제주목, 고적, 고장성/ 송담천	환해장성, 전사	
23	이원조, 『탐라지초본』 제주목, 고적, 장성	환해장성	

참고문헌

1. 사료

- 『고려사』.  
『고려사절요』.  
권근, 『양촌선생문집』.  
담수계, 『증보탐라지』.  
『등과록전편』, 서울대 규장각.  
김상헌, 『남사록』.  
김석익, 『탐라기년』.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정복, 『동사강목』.  
윤시동, 『증보탐라지』.  
이색, 『목은문고』.  
이원조, 『탐라지초본』.  
이원진, 『탐라지』.  
이형상, 『남환박물』.

2. 묘지명

- 미상, 「문숙공묘지(文肅公墓誌)」/김주정(金周鼎) 묘지명(『광산김씨족보』, 1934).  
윤선좌, 「충숙공묘지(忠肅公墓誌)」/김심(金深) 묘지명(『광산김씨족보』, 1934).  
이색, 「송당선생김공묘지명병서(松堂先生金公墓誌銘并序)」, 『목은문고』 권17.  
이제현, 「옥구군대부인고씨묘지명(沃溝郡大夫夫人高氏墓誌銘)」.  
최해, 「문정공김태현묘지명(文正公金台鉉墓誌銘)」.

3. 논저

- 강창언, 1991, 「제주도의 환해장성 연구」, 『탐라문화』 11.  
고창석·강창언, 1989, 「옛 제주관문인 화북포구 일대 학술조사」, 『탐라문화』 8.  
고창석, 2007, 『탐라국시대사』, 서귀포문화원.  
김석익 저, 홍기표 외 역주, 2016, 『역주 탐라기년』, 제주문화원.  
김보한, 2016, 「제주도 환해장성과 규슈 원구방루의 역사적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55.  
김봉옥, 1987, 『제주통사』, 제주문화.  
김영길 역주, 2016, 『국역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 김용선, 2006/2012, 『역주 고려묘지명 집성(상, 하)』, 한림대출판부.  
\_\_\_\_\_, 2016, 『(속) 고려묘지명 집성』, 한림대출판부.  
김찬흡 외, 2002,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박종기, 2011, 「고려시대 종이 생산과 소 생산체제」, 『한국학논총』 35.  
윤용혁, 2011, 「고려 삼별초의 항전과 진도」, 『도서문화』 37.  
이형상 저, 이상규·오창명 역, 2009, 『남환박물』, 푸른역사.  
전영준, 2015, 「삼별초의 항과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제주교육박물관, 2007, 『탐라지초본(상,하)』.  
제주문화원, 2005, 『역주 증보탐라지』.  
홍기표, 2008/2009, 『남사록 역주(상,하)』, 제주문화원.

Abstract

## Kim Soo's life in Koryo Dynasty & Jeju Island

Hong, Ki-Pyo\*

This paper is the study of Kim-su(金須)'s life & his past governmental positions and Jeju(濟州), a place with which he made a relationship. This study can be ascertained through series biographies(墓誌銘) of people who were related to him and a list of past apprentices(榜目類). In addition his life was precisely examined and following facts were newly investigated by this study. First, he was identified as the leader of Yeonggwang-gun(靈光郡) through various historical records. Thus considering the then local ruling system, Yeonggwang Gun-su(郡守) or Yeonggwang Busa(副司) was the right title for him.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he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文科) in 1255(Koryo Kjong 42). Therefore calling him 'General(將軍)' was not profitable because it was the name for the person who passed the military service examination(武科). Third, it was known that Kim-su was a man of integrity and strived to concentrate on his studies. This made his offspring become prestigious family of Koryo-Dynasty,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 for generations. Moreover he was incorruptible bureaucrat and loyal to his country.

**Key Words** : Koryo Dynasty, Kim Soo, Jeju Island, Sambyeolcho, The Great Wall of surrounding seas(環海長城)

교신 : 홍기표 633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67,  
부영3차아파트 303동902  
(E-mail: hkp6236@naver.com)

논문투고일 : 2021. 01. 18

심사완료일 : 2021. 01. 31

게재확정일 : 2021. 02. 01

---

\* Former Adjunct professor of Department of History in Sungkyunkwan University